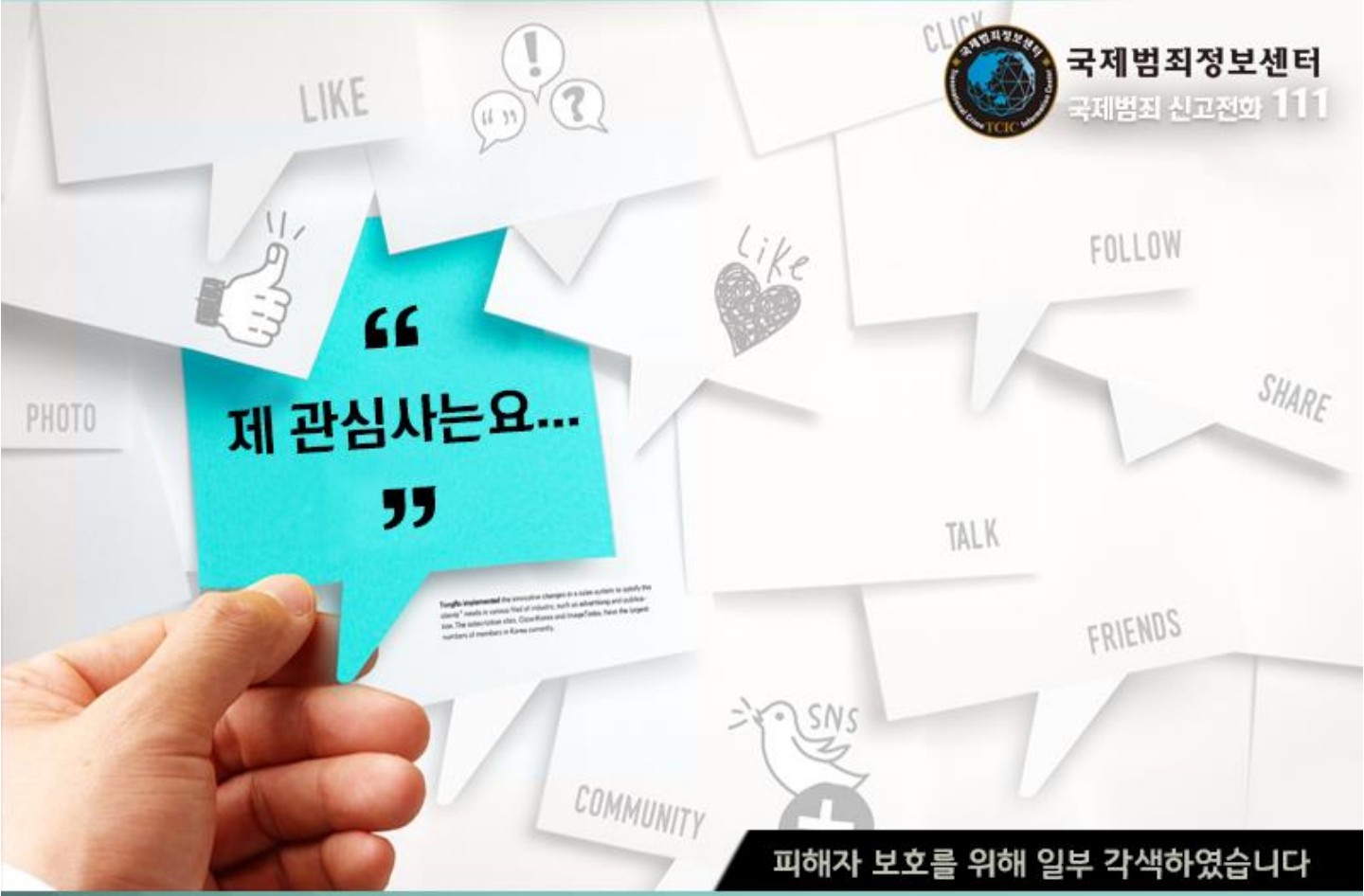
공짜여행이 감옥행?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범죄 신고전화 111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난민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60대 김씨.
가나 출신 난민 ‘크리스’를 인터넷에서 만나,
난민지원사업 등을 논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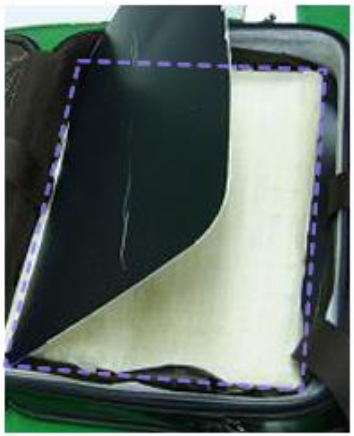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범죄 신고전화 111



어느날 김씨는 크리스로부터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주면 여행경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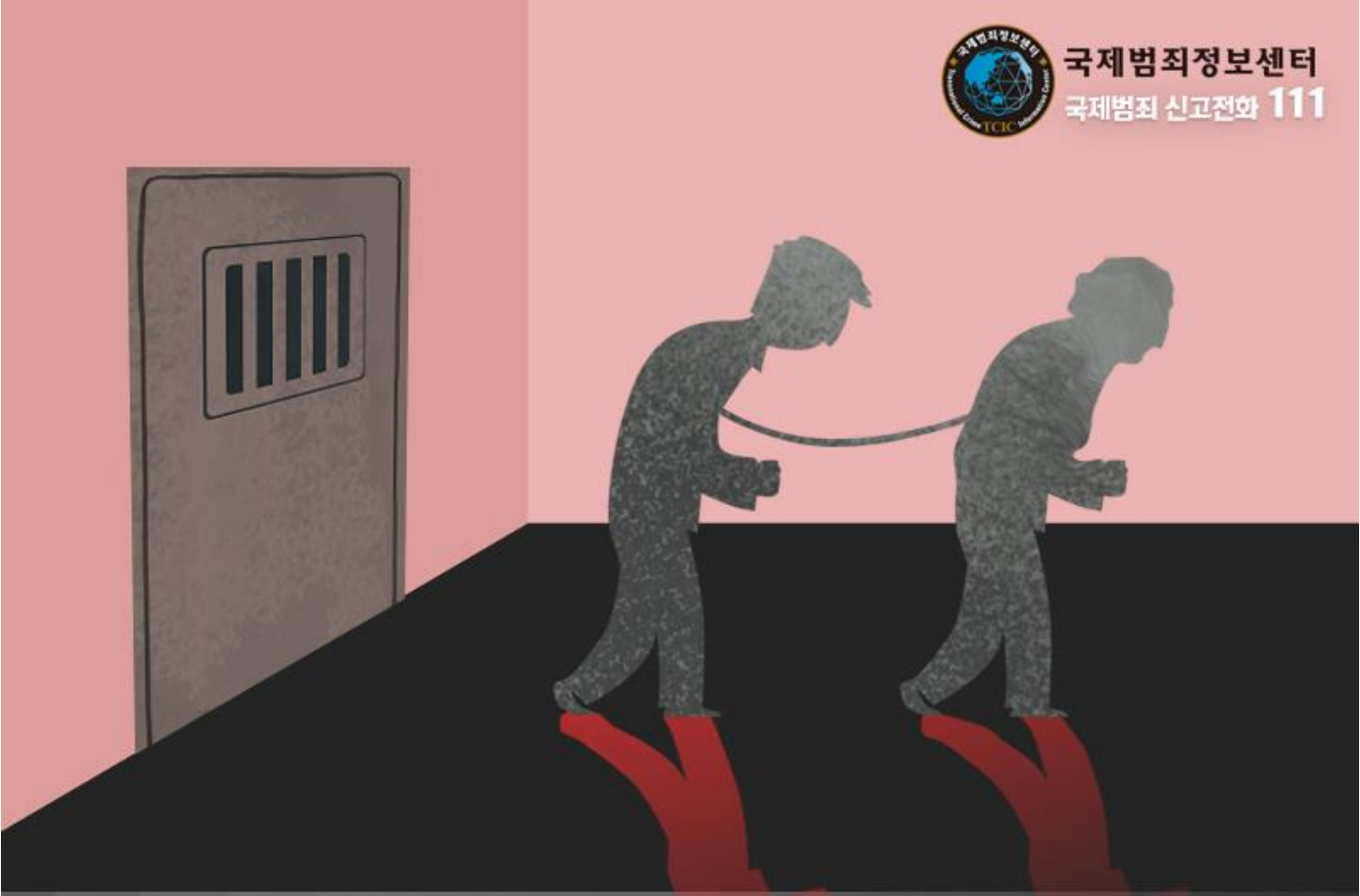


온천도 즐길겸 들뜬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향한 김씨. 하지만 김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온천이 아닌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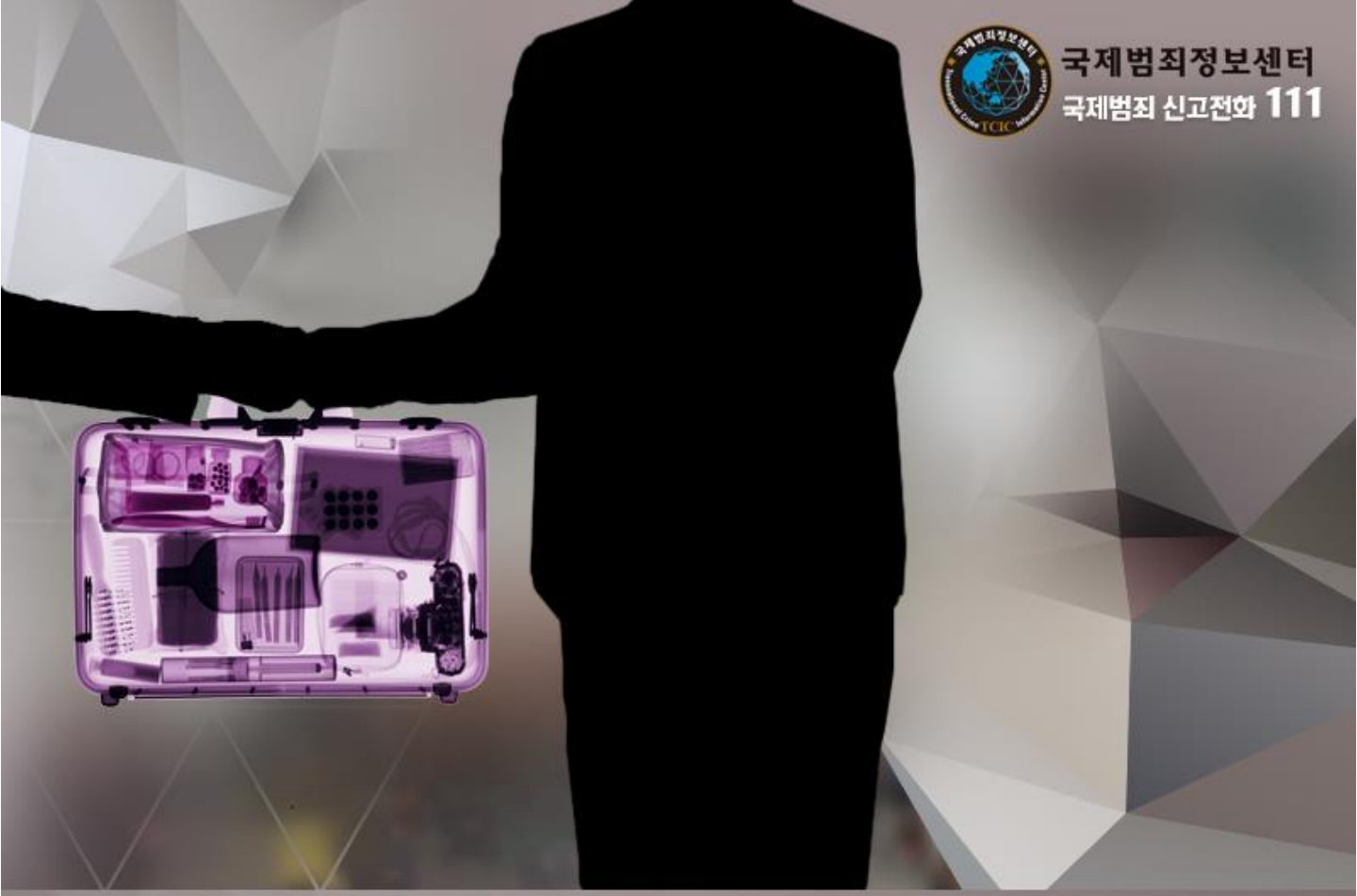


2중바닥 처리된 가방과
그 안에 숨겨진 필로폰

수사 결과 크리스가 맡긴 가방 안에 필로폰 3kg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맨 밑바닥 별도의 공간에 필로폰을 숨겨 김씨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입니다.



김씨 부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결국 일본 당국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범죄 신고전화 111

국제마약조직은 우리국민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의 공항 검색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가는 제안? 111로 신고하세요!

국익을 지키는 여러분이 국정원입니다.

“마약운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공짜여행 등 의심되는 제안은 명확히 거절하고, 아무리 친분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가방 등을 해외로 전달해 달라거나 공항에서 물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은 거절해야 합니다.